

I see that the Australian tennis player Nick Kyrgios is about to take on a mentor. It's interesting that this person is a mentor, not a coach. Even so, his role will be to coach and support Nick. In view of Nick's recent mental attitude, the appointment of a coach/mentor is a good thing. Far too often, Nick seems to have lost his way.

제가 알기로, 호주 테니스 선수인 닉 키르기오스(Nick Kyrgios)는 멘토를 고용하고자 하던 참입니다. 이 사람이 코치가 아니라 멘토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역할은 닉을 지도하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의 닉의 정신 자세에 대해 고려할 때, 코치/멘토의 임명은 좋은 일입니다. 닉은 너무 자주,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A coach is helpful when things go wrong. With tennis players, maybe they're not hitting the ball properly. Or, the ball toss for the serve is not right. The players themselves often cannot see what's causing their problem. A good coach makes a big difference. The problem is often solved by the player going back to what was learned in the first place. Recalling and practicing what was studied so carefully in the beginning, can often improve their game.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 코치는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 선수에게 있어, 이는 아마도 공을 제대로 치지 않거나, 또는 서브를 위한 공 토스가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종종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좋은 코치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맨 처음 그들이 배웠던 기초로 돌아갈 때, 해결되곤 합니다. 아주 주의깊게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고 연습하는 것은 종종 자신들의 경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We have a similar kind of problem to the professional sports men and women. Just like them, we can lose our way. Moreover, we cannot always solve our problems. This happens especially when we face life's difficulties. So, I suppose, if we're honest, it often happens to us. In addition, it becomes doubly hard, when our prayers don't seem to get answered. That's where Habakkuk helps us.

우리는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솔직하다면, 저는 이러한 일이 자주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는 두배로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Our difficulty is that we cannot see life as a 'big picture.' We're caught up in our small corner of the world. Often, we cannot see things from God's point of view. Just like Habakkuk, we cry out (1:2)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you do not save?*** Praise God, in the Bible, and especially in Habakkuk, we can see behind the events of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구석에 갇혀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우리는 부르짖습니다(1: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하박국서에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God's timing is central to Habakkuk's message. Habakkuk began with the cry ***How long?*** But after making several complaints about life, Habakkuk knows that he must wait. 2:1, ***I will stand at my watch...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하나님의 때는 하박국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이리까?***라는 외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에 관한 몇몇 불평 후에, 하박국은 그가 기다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2:1 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And so, at the centre of this book, waiting on God to act, is important. Note 2:3a, where God speaks,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n typical Hebrew poetic form, the Lord God repeats this, and then adds to His word to Habakkuk. 2:3b, ***It [God's revelation]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not delay.* God will ultimately right all wrongs. This is what Habakkuk must proclaim.

이 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2 장 3 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전형적인 히브리어 운문 형태에서, 주 하나님은 이를 반복하시고, 그런 다음 하박국에게 그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3b 절에, *이는[하나님의 묵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Meanwhile, God calls upon His people to wait, with patience and with faith. Near the end of the book of Habakkuk, in 3:16b, we see him trusting in God’s faithfulness. *I will wait patiently for the day of calamity to come on the nation invading us.* Thus, this book takes God’s people from confusion and despair to clarity and hope. One commentator writes, we move ‘from fear to faith.’

한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인내와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박국서의 거의 끝부분인 3:16b 절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이와 같이, 이 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과 절망에서 명확함과 희망으로 이끕니다. 한 주석자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움직인다 라고 기록합니다.

We can easily put ourselves in Habakkuk’s shoes. He has been concerned about the sinful lifestyle of the people living in Judah. 1:3b,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With increasing violence in the world, we too are concerned. Even within our own city, violence worries us.

우리는 쉽게 하박국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죄스러운 삶의 방식에 대해 염려해 왔습니다. 1:3b 절에, *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역시,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폭력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폭력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But Habakkuk was horrified by the Lord’s plans for sinful Judah. God would send the Babylonians to overrun them. And they were more wicked than Judah. Habakkuk even challenges God’s wisdom in this matter. Note 1:13, *Your eyes are too pure to look on evil; you cannot tolerate wrong. Why then do you tolerate the treacherous?* Habakkuk is wrestling with God. How can He possibly use a wicked nation to judge His own people?

그러나 하박국은 죄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린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보다 더 사악했습니다. 하박국은 심지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합니다. 1:13 절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에 주목 하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악한 족속을 쓰실 수 있으실까요?

In Genesis 18 Abraham pleads with God for Sodom, the wicked city. Abraham doesn’t give up. Yet only Abraham’s nephew, Lot, and his three daughters were saved (19:30). During Israel’s exodus from Egypt, Moses pleaded with God for his people, many times. Yet many died. So too, Job questions God’s ways. Yet each one of these three men trusted in God’s sovereignty and faithfulness.

창세기 18 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악랄한 도시인 소돔을 위한 탄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세 딸들만이 구하여졌습니다(19:30). 이스라엘의 출애굽동안, 모세는 수차례에 걸쳐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Do you follow what I’m saying? Like the saints of old, we’re called to trust in God’s mercy and grace. So too, we trust in His faithfulness; His sovereignty and His providence; His care for His creation. The Bible teaches us that God knows all things. At any point in time He know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He knows our hearts, even what we’re about to say and do.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옛 성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신실함, 그의 주권과 섭리, 그가 창조한 것들에 대한 그의 보살핌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언제든지, 그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할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But, we are to wrestle with God in prayer. Jacob wrestled with God (Genesis 32:22-32) and wouldn't give up until God blessed him. The Apostle Paul spoke of his constant prayers for the people in the church. In Colossians 4:12b Paul writes about Epaphras, a man of prayer.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that you may stand firm in the will of God, mature and fully assured.*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창 32:22-32),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안의 사람들을 위한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12b 절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에바브라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Having wrestled with God in prayer, then, like Habakkuk we must wait. Habakkuk 2:1, *I will stand at my watch...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God graciously gives His prophet Habakkuk a vision [revelation] of the future. How long would it take to come about? As far as Habakkuk is concerned, he doesn't know.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한 후,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1 절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자비롭게 미래에 대한 비전[묵시]을 주십니다. 이 묵시가 응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박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Habakkuk 2:2,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That Habakkuk is to *write... on tablets* reminds us of God writing the Ten Commandments (Exodus 31:18). Jewish tradition notes that the 613 laws in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have been reduced to one in Habakkuk. This law is found in Habakkuk 2:4b,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하박국 2:2 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판에 기록하고자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을 상기시킵니다(출 31:18). 유대의 전통은 성경의 첫 5 권에 있는 613 개의 율법이 하박국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음을 언급합니다. 이 율법은 하박국서 2:4b 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o important is this message that Habakkuk is given the responsibility of proclaiming it. Yet it's clearly not for Habakkuk alone. The word translated *herald* can also mean *so that whoever reads it* (see margin of the NIV). Down through the ages this message is at the heart of God's word. It began with Abraham in Genesis 15:6, *Abr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In the New Testament faith and righteousness are again linked together, in Romans 3:22,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이 메세지는 너무나 중요해서, 하박국에게 이를 선포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이것이 오로지 하박국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알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를 읽도록*이란 뜻도 될 수 있습니다(NIV 성경 주석 참고). 대대로, 이 메세지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5:6 절의 아브라함과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에서 믿음과 공의는 다시 로마서 3:22 절에서 연계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However, we cannot limit this revelation to Habakkuk with just part of one verse (2:4b). Listen again to 2:3,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This revelation to Habakkuk speaks about the future, which is declared to be certain.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한 구절의 일부분(2:4b)으로 하박국에게 한 이 묵시를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2:3 절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 한 이 묵시는 확실히 일어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braham believed that his wife, Sarah, would have a son and heir. His birth would be **at the appointed time** (Genesis 18:14). God's faithful promises would come true. However, Abraham had his doubts. For, when he received the promise he was about 86 years of age. His son, Isaac, wasn't born until he was 100 years old.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과 자손을 낳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기한이 이를 때에** (창 18:14)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그는 약 86 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그가 100 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Habakkuk must have wondered why God's promise to His people began with their being overrun by the Babylonians. Yet, like Abraham he had to trust that this revelation would be fulfilled at the **appointed time**. He was also told that this time, **speaks of the end**.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언약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한 짓밟힘으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처럼, 이 묵시가 **정한 때에** 실현될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그 때에 대해 들었습니다.

For Habakkuk's people there would be an end when the treacherous Babylonians would be overrun. But before that happened, God's people would spend about 70 years in exile, in Babylon. After that time, a faithful remnant would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에게 갈대아 인들이 들끓게 될 때가 종말의 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 70 년간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실한 남은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Even so, the final resolution of the problem for God's people has another end in mind. And so this verse speaks to us. We Christians await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Christ. We read in Hebrews 9:28,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will bring on the Day of Judgment. Finally, we look forward to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그러지만, 하나님 백성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은 다른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28 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 예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I'm sure that you have many questions about the Day of Judgement. But I don't want to focus today on the return of Christ. Other occasions will suit that topic better. At the same time, let's not undervalue the return of the Lord. For, we long to see Him and we long to see His justice on this earth. We eagerly await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n end to suffering and evil is our heart's desire. But, like Habakkuk, we must wait. 2:3b, **Though it linger,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저는 여러분께서 심판의 날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중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때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돌아오심을 과소평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보기를 고대하며, 지상에서 그의의를 보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통과 악의 마지막은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2:3b 절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Habakkuk didn't know how long to wait. We don't know exactly when the Lord will return. From our point of view, it may seem to be too long. However, from God's perspective His plan *will* be fulfilled and cannot be questioned. Like Habakkuk, we must be patient, and wait. And so we read in Hebrews 10:37b, 38a,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하박국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는 아마도 오랜 시간일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37b, 38a 절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substance of Habakkuk's vision (revelation) is in 2:4, 5. 2:4, **"See, h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The first part of this verse gives us God's analysis of the proud. (In the first place, this refers to the Babylonians.) They are *puffed up*, bloated with their own self-importance. Here is the contrast between those who are righteous and those who are not. It'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er and unbeliever. The proud *are not upright*. So their future lies in condemnation and judgment. We could add, 'their time will come.'

하박국의 비전(묵시)의 본질은 2:4,5 절에 있습니다. 2:4 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의 첫부분은 우리에게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고찰을 제시합니다. (우선, 이는 갈대아 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스스로에 대한 거만함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사이의 차이입니다. 오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정죄와 심판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때가 올 것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2:4b,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These words are a watershed in God's revelation.

This is how Francis Schaffer describes the meaning of 'watershed.' Picture a high, snow-covered ridge of land. The snow seems to lie there in unbroken unity. But that's an illusion. As the snow melts one part flows down into the valley on one side of that divide. Snow which lay close beside it, melts and flows down into another valley. In Switzerland, as Francis Schaffer sees it, the river in one valley flows down into the Rhine River. It then flows out into the North Sea. The other river, in the other valley, flows down to the Rhone valley and into Lake Geneva. Finally, it flows into the Mediterranean Sea. These two seas are far apart from each other.

2:4b 절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의 분수령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이런 식으로 '분수령'의 의미를 서술합니다. 높고, 눈 덮인 산등성이를 그려보십시오. 그 눈은 마치 깨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놓여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눈이 녹으면, 한 부분은 구획의 한쪽 면의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옆에 가까이 놓인 눈은 녹고, 다른 계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보았듯이, 스위스에서 한 계곡의 강은 라인 강으로 흘러 듭니다. 그런 다음 이는 북해로 흘러 나옵니다. 계곡의 다른 강은 론 계곡으로 흘러, 제네바 호수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는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두 바다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Going back to Habakkuk, the watershed is 2:4. The wicked (a word that Habakkuk uses in 1:15) are *puffed up* and live crooked lives. They are not *upright*. And so the contrast is made between them and the godly. For,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분수령은 2:4 절에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1:15 절에서 하박국이 사용한 단어) **교만하며**, 병든 삶을 삽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경건한 자들 사이에 대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word *righteous* is a legal word. In the Old Testament, behind its use lies some matter that's settled by a judge. It's not important whether it refers to right living (a moral quality) or our status before God. At the heart of it is judgment. It's a legal term.

의롭다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사용 이면에는 재판관에 의해 정해진 어떤 사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도덕적 자질), 또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입니다.

The question for us is, ‘How do you and I come to be declared righteous?’ Is there anyone who can stand before God and be declared absolutely guiltless?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라고 선포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2:4b once again,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The words *by faith* are properly connected to the words, *will live*. This appears to leave open the question as to how one can become righteous. But, true righteousness is always outside of us. No good deed can make us righteous. Righteousness is a legal term. It’s God’s declaration that we’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O. Palmer Robertson notes, **If continuing life is a gift received by faith, then righteousness that is the basis of life must have the same source.**

2:4b 절에서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살리라*라는 단어와 연계됩니다. 이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항상 우리 밖에 있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 팔머 로버트슨은 **만일 계속되는 삶이 믿음으로 받게 된 선물이라면, 삶의 근간인 의로움은 동일한 근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언급합니다.

And so Habakkuk 2:4b echoes Genesis 15:6. *Abr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The *righteous* of Habakkuk 2:4b are ‘justified [= declared righteous] by faith’ just as Abram was justified by faith. In other words, God declares that you a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faith.

또한, 하박국서 2:4b 절은 창세기 15:6 절의 반향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것 처럼, 하박국서 2:4b 절의 *의*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의롭다고 선언됨]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In Habakkuk you and I are called upon to ‘live by faith.’ So, life does not come through good works. If that were the case, then we’d be no different from the proud who are *puffed up*. Rather, as Paul wrote in Ephesians 2:8, 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John Calvin writes that this **faith strips us of all arrogance, and leads us naked and needy to God, that we may seek salvation from Him alone, which would otherwise be far removed from us.**

하박국서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부름받습니다. 때문에, 삶은 선행을 통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쭐대는 오만한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서 2:8,9 절에 기록한 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존 칼빈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모든 오만을 벗기고, 우리를 발가벗기고, 하나님께 곤궁하게 하여, 이는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서만 구원을 찾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크게 동떨어져 있게 될 것이라 기록합니다.

In the New Testament, Habakkuk 2:4b is used by the apostle Paul as the single phrase on which to base his letter to the Romans. He first quotes it in Romans 1:17,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In Galatians 3:11 he writes, *Clearly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Paul is saying that the faith Habakkuk speaks of is trust in God for salvation.

신약에서, 하박국 2:4b 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기저에 단일 구절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서 1:17 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11 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Habakkuk 1:12 the prophet's frustration is summed up in his cry to God, **we will not die**. But then God's revelation in 1:6-10 offered Habakkuk little hope. Israel appeared to be lost. But the Lord has other ideas;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O. Palmer Robertson concludes, **'The justified by faith continue to live by faith'**.

하박국 1:12 절에 선지자의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에 요약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1:6-10 절의 하나님의 묵시는 하박국에게 작은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 팔머 로버트슨은 **'믿음에 의해 의로워진 자는 계속 믿음으로 살리라'**고 끝을 맺습니다.

Many biblical moral and ethical issues in our country are under attack. The attacks on our Christian faith frustrate us. As Christians we often wonder why God did not hear our prayers. In our own lives, we wonder why God so often appears to be silent. So let us remember Habakkuk. He was passionate in his request that God answer his prayers. But he was also moved by the holiness of God. And then, God's answer to him was, **wait**. Wait for the end which **will certainly come and not delay** (2:3). Meanwhile, Habakkuk was to write down God's revelation.

우리 사회의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경적 주제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믿음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기도를 듣지 않은것인지 의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하박국을 기억해 둡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하시기를 열심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신성함에 감동 받았습시다. 그런 다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였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2:3 절). 그런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기록해야 했습니다.

Like all of the Scriptures, it has been written down for us. We read in 1 Corinthians 10:11,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as examples and were written down as warnings for us, on whom the fulfilment of the ages has come**. In Jesus Christ the end has come. One man writes, **'The countdown has begun'**. Meanwhile, the meaning of life and our right relationship with God flow from commitment to Him.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성경의 모든 부분처럼, 이는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 절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이 도래했습니다. 누군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삶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는 언약으로부터 흘러 나와 그분께로 향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Habakkuk points out to us that there are two ways to live. You can live like the Babylonians. But, relatively speaking, their time is short. You can try to be good enough for God. But you'll fail. Or, you can learn the lesson that God taught Habakkuk;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us, two paths lie before you. Basically they are belief and unbelief. This is God's watershed. Friends, I pray that you choose the path of faith that leads you to the Lord Jesus Christ.

하박국은 우리에게 두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갈대아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들의 때는 짧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정도만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믿음과 믿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How can we enter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e Apostle Paul writes in Romans 4:5,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ungodly, their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Think of it in this way. The Lord Jesus never sinned. His death on the cross was the one

true sacrifice for our sin. When God declares that we're righteous, Christ's perfect obedience is credited to all who trust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Christian friends, God now sees you as He sees His Son, righteous.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5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결코 죄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단 하나의 진정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크리스천 동지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아들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When the Lord Jesus commenced His ministry He began it with these words in Mark 1:15,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We are to turn away from sin, and, in faith, receive Jesus as our Lord and Saviour.

주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마가복음 1:15 절의 말씀으로 이를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Unlike sports men and women, you don't need a coach. You need the Lord Jesus Christ. You don't even need someone to point out your faults. Read the Bible and you'll find them for yourself.

운동 선수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은 코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를 찾으실 것입니다.

But you do need someone to take you back to the beginning, to a life that is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Both you and I need the Lord Jesus Christ. Only by God's grace, through faith in Him—His death and resurrection—can we know real life. This is eternal lif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peace with God. This is resurrection life. It is the message that you and I must proclaim. Amen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으로, 처음으로 여러분을 되돌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를 믿음으로서 -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생,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선포할 메세지입니다. 아멘